

圖 協 消 息

第6次 常務理事會 會議錄

日 時：1969年 11月 7日 午後 3時

場 所：圖協 事務局

參 席：朴啓弘, 李文垣, 李載喆, 李春熙, 張一世, 崔載喜, 崔根滿(委任) 姜周鎮, 崔昌均(가나다順)

案 件：1. 事務局 報告

2. 1969年度 事業進捗 報告
3. 1970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 討議
4. 司書職 海外 訓練規程案 審議
5. 其他

成員報告

崔根滿(事務局長)：이사 9名中 참석 7名 위임 2名으로 성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會長님께서 갑자기 會議가 있어 못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셔야겠습니다.

李春熙(理事)：서울대학교 崔館長님이 좋겠습니다.

—일동 만장 일치로 찬성하다—

案 件：事務局 報告

朴大權(總務部長)：지난 第3次 理事會 이후의 事務局 報告를 油印物에 의해 報告하겠습니다.

가. 總理現況 報告

總豫算額	17,353,506원
歲入額	12,957,110원
歲出額	12,745,658원
殘額	211,452원

나. 諸會議 및 其他

- ① 3次에 걸친 分科委員會 開催
- ② 10月3日 李春熙 新任 專門委員長 委嘱
- ③ 10月 22日 白麟 前 專門委員長 渡美
- ④ 10月 22日 崔根滿 事務局長 歸國
- ⑤ 10月 30日 法人體 實態調查 實施(市教育委員會)

案 件 2. 事業進捗 報告(10月4日—11月6日)

- 가. 公共圖書館運營 (翻譯書) 1,000부 發行 完了(10月25日)
- 나. 韓國圖書館史研究(叢書) 1,000부(11月5日)
- 다. 도협월보 10月號까지 發送 배부 완료
- 라. 배부함자료 23,190部를 會員 圖書館에 配付 (10月29日)

臨時議長(崔載喜)：案件을 討議하기 前에 崔局長이 日本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日本圖書館界에 對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도협월보” 12月號 p. “日本圖書館界 訪問記” 參照

李載喆(理事)：崔局長께서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만 제가 外國에 갔을때 느낀점인데 外國의 圖書館에 韓國資料가 너무도 빈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外國에 나갈때는 우리의 資料를 PR하는 文化的外交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張一世(理事)：아마 外國에 다녀온 圖書館人들이 共通의으로 느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臨時議長(崔載喜)：詳細한 報告를 해 주시고 또 좋은 成果를 겸우고 돌아오셨습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事務局 報告事項에 대해서는 다른 質疑事項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案 件 3. 1970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審議

朴大權(總務部長)：配付된 油印物에 依하여 報告하다.

가. 事業計劃案

補助事業

- 1) 圖書館週間 行事
- 2) 讀書週間 行事
- 3) 圖書館 統計事業
- 4) 도협월보 發行
- 5) 韓國書誌事業
- 6) 圖書館學叢書 및 翻譯事業
- 7) 選定圖書事業
- 8) 國際交流事業

自體事業

- 1) 全國 館種別 圖書館大會
- 2) 配付函 事業
- 3) 地區協議會 및 部會 育成事業
- 4) 資料室 運營
- 5) 委員會 事業
- 6) 出版物 普及 事業
- 7) 表彰 事業
- 8) 其他 事業

나. 豫算案

總豫算額	20,396,300원
事業費	12,062,400원
事務局費	7,163,400원
其他	584,500원
豫備費	586,000원

臨時議長(崔載喜)：協會에서豫算을 세우면 몇 %까지 침행이 됩니까?

崔根滿(事務局長)：今年을 標準으로 하면 85—90% 執行이 되고 있습니다. 來年度에는 叢書와 翻譯書 6種을 前半期에 發刊하면 90% 以上의豫算을 執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載喆(理事)：圖書館週間 行事와 讀書週間 行事에 있어豫算面에서 讀書週間 쪽에 많은豫算이 세워졌는데 圖書館人으로서는 圖書館週間 行事를 더置重해야 할 것 같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李先生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만 昨年度에도 讀書週間 行事를 出協으로 넘기려다 안됐습니다. 저희가豫算을 세워도 文教部에서 決定이 되야하는데 文教部 측에서通過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努力은 하고 있읍니다만 잘 되지가 않는군요.
—— 1970年度豫算案을 가지고長時間討
議하다完全한決定을 보지 못하고次期
理事會 때 討議하기로 하다. ——

案 件 4. 司書職 海外訓練規程案 審議

朴大權(總務部長)：配付된 司書職 海外訓練規程案을朗
讀하다.

崔根滿(事務局長)：規程案을 審議하기 前에 本 규정이
안전으로 채택된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國際會議時に ありました 美國 代表와 몇몇이 모여 兩國의
協助 問題를 갖고 討議한 結果 專門職 訓練을 시킬
수 있는 機회를 마련할 것과 美國의 圖書館界를 시
찰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 그리고 양국 協會에서 刊
行하는 出版物을 交換하는 意見에 서로 合議했음
니다. 그뒤 美國에 계신 金重漢 博士가 다시 교섭을
하여 Clift 氏로부터 명년에 專門職이 訓練 받을 수
있는 機회를 ALA 의 International Relation Office
의 事業으로 마련하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현
지에 美大使館의 Bartz 氏와 梨大的 李鳳順 氏를 포
함한 인선위원회를構成하여 選拔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朴啓弘(理事)：시간도 많이 지났고 당장 이 규정을 審
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좀
研究한 후 다음 會議 때에 討論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同 滿場一致로 贊成하다 —

臨時議長(崔載喜)：그럼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長時間 手苦하였다니 感謝합니다.

第2次 分科委員長 會議錄

日 時：1969年 11月 12日 午後 4時

場 所：圖協 事務局

參 席：李春熙, 李詮珪, 任鍾淳, 鄭馳謨, 千惠鳳, 崔
根滿.

案 件：1. 一般報告

2. 委員會 報告
3. 圖書館開發 長期計劃 推進에 關한 일
4. 館種別 圖書館大會에 關한 일
5. 司書職 海外訓練規程案 討議
6. 其他

成員報告

崔根滿(事務局長)：分科委員長 8名 중 6명이 參席하시
고 金世羽 先生任과 李正浩 先生任께서는 신병으로
參席하시지 못했으나 成員 되었음을 報告드립니다.

案 件：1. 一般報告

崔根滿(事務局長)：白鱗 前 專門委員長님께서 渡美하
시게 됨에 따라 지난 10月 3日 3次 理事會에서 新任
專門委員長에 李春熙 先生님께서 選出되었습니다.
簡單한 人事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李春熙(委員長)：부족한 제가 委員長職을 맡게 되었읍
니다. 제가 알기로는 分科委員會의 活動이야말로 圖
書館協會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分科委員會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읍니다. 여러 위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任鍾淳(選定分委長)：節次상의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專門委員長이 辞任을 하면 分科委員長도 道義의으로
辭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辞任도 않고 留任해 있는
것 같읍니다. 合法의인 節次가 必要하지 않을까요.

崔根滿(事務局長)：여러 分科委員長님들께서 留任하고
계신 것은 事務의in 節次만이 省略된 것입니다. 專門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分科委員長은 專門委
員長의 推薦으로 會長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事務의in 節次만 省略했을 뿐이지 모두 再 委
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案 件 : 2. 委員會 報告

委員長(李春熙)：여러 分科委員長님께서 각 分科委員
會의 活動 狀況을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李詮珪(行政分委長)：저희 行政分委에서는 6가지의 事
業計劃을 가지고 3次에 걸쳐 會議를 갖고 韓國圖書館
協會 奬學規程, 韓國圖書館學會 會則, 圖書館人人名
簿 作成 等 3가지 事業은 완결된 단계에 있으며, 任
員選舉制度, 圖書館 開發 長期計劃 推進, 圖書館法改
正 問題는 각 委員이 分擔하여 研究中에 있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教育·調查分科委員會는 그간에 4
次에 걸쳐 會合을 갖고 韓國圖書館學 教育實態 調查
를 完了하여 現在 分析 중이고 編輯分委는 1次의 會
合을 갖고 現在 10月號까지 月報가 發行되어 配付
完了 되었으며, 내용을 좀 더 참신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研究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用語分委는 2次에
걸쳐 會合을 갖고 用語集 수정을 위하여 檢討 중에
있습니다.

千惠鳳(分類分委長)：저희 分委는 1회밖에 會議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난 7月 第1次 會議 때에 KDC를 수정
하기 위해 各 分野別로 分擔하여 研究 중에 있으며
불완전 회의를 소집하여 作業을 推進할 豫定입니다.

鄭馳謨(目錄分委長)：目錄分委는 油印物에서 보시다시
피 5번에 걸쳐 會議를 하였으며 현재 KCR의 수정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任鍾淳(選定分委長)：11次에 걸쳐 會議를 하여 選定된

圖書를 月報에 모두掲載하였습니다.

委員長(李春熙) : 지금까지 報告된 事項에 대하여 質問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任鍾淳(選委分委長) : 教育·調查分委의 活動 중 現職司書의 再教育問題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現在 國立圖書館에서는 資格取得 講習을 하고 있는데 教育·調查分委에서 意圖하는 것은 司書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專門分野에 따른 Seminar를 開催하여 司書들에게 새로운 知識을 供給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來年度에 우리 모두가 研究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案 件 : 3. 圖書館 開發 長期計劃 推進에 關한 일

朴大權(總務部長) : 본 안건은 行政分委에서 하던 일로 分科委員會에서 하기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 分委長會議의 案件으로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李春熙) : 圖書館 開發 長期計劃은 지난 번 國際會議以後 우리의 觀心事로 대두되게 된 것인데 美國에 계신 金重漢 博士께서 問題를 提示해 주셨습니다. 이 案件은 長時間의 討議가 必要할 것 같으니 다음 機會에 이 案件만을 위하여 會議를 召集하여 討論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同 賛成하다 —

案 件 : 4. 館種別 圖書館大會에 關한 일

朴大權(總務部長) : 本 案件은 지난 6次 常務理事會에서 圖書館大會를 지금과 같은 方法으로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綜合하여 하도록 하자는 意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하여 案件으로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李詒珪(行政分委長) :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에서 集約하여 開催하려면 준비위원회라든가 하는 機關이 必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總會와도 合쳐서 하는 方法도 研究해 볼 만한 課題라 생각됩니다.
—長期間 討議 끝에 來年度 大會는 이미 今年 大會에서 地域別로 開催토록 결정 되 있으니 來年까지는 그대로 施行하고 그以後의 大會 開催에 대해서는 時間을 갖고 充分히 研究 檢討하여 決定키로 함—

案 件 : 5. 司書職 海外訓練規程案 討議의 일

崔根滿(事務局長) : 지난 번 國際會議 때에 왔던 美國代表와 몇몇이 모여 兩國의 協助問題를 갖고 討議한結果 專門職 訓練을 시킬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할 것과 美國의 圖書館界를 視察할 機會를 마련해 줄 것과 兩國 協會에서 刊行하는 出版物을 交換하자는 意見에 서로 合議했습니다. 그뒤 美國에 계신 金重漢博士가 다시 交渉을 하여 Clift 氏로부터 명년에 專門職이 訓練받을 수 있는 機會를 ALA의 Internat-

ional Relation Office의 事業으로 마련하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美大使館의 Bartz 氏와 李鳳順 氏를 포함한 인선위원회를 構成하여 選拔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規程案을 마련한 것입니다.

鄭馳謨(目錄分委長) : 時間도 많이 지났고 지금 이 規程을 審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案을 가지고 좀 研究한 後 다음 會議時 討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同 滿場一致로 賛成하다 —

委員長(李春熙) : 時間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會議에서 決定을 보지 못한 案件은 여러 委員長님께 속제로 드리기로 하고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第5次 目錄分委會議錄

日 時 : 1969年 10月 31日 午後 3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鄭馳謨, 南承冕, 朴仁雄, 方孝甲, 張大遠

決議事項 : 韓國目錄規則 第1章 基本記入의 選定, 1. 通則 부터, 3. 共著書까지 檢討

第6次 目錄分委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21日 午後 4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鄭馳謨, 南承冕, 方孝甲, 張大遠

決議事項 : 記述目錄의 原則 問題를 檢討.

第5次 教育·調查分委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19日 午後 4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金世翊, 安永柱, 禹大燮

決議事項 :

1. 事務局에서 韓國圖書館學 實態 調查에 關한 設問을 萬集, 集計한 資料를 金世翊 委員長이 分析하여 報告書를 作成키로 함.
2. 報告書 草稿를 12月 8일까지 Copy하여 委員들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한다.
3. 12月 10일에 最終 會議를 갖고 報告書를 完結하여 印刷에 回付한다.

第2次 分類分委 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24日 午後 3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千惠鳳, 楊炯祿, 尹炳泰, 尹泳大, 李丙洙, 李龍洙, 張基勳。

決議事項 :

- 形式區分, 地理區分 및 其他 共通區分을 檢討하여 새로운 項目를 插入하고, 부적당한 項目的 刪除를 論議하고, 그 중 몇 가지 問題點에 對해서는 各者가 研究 檢討하여 決定 짓는다.
- 次期 會議는 12月 19일 午後 4時에 갖되 第1次 會議時 配當된 部分을 調査, 檢討하여 疑問되는 점을 全體 會議에 提議하여 檢討 論議함으로서 各者分擔業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分類分委會議)

第11次 選定分委 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10日 午後 5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任鍾淳, 孫正彪, 李澤瀞

決議事項 : 12月號 月報에 掲載 할 原稿를 各自 分擔하여 檢討함.

第4次 行政分委 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28日 午後 3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李皓珪, 金榮朝, 安松山, 尹汝澤, 尹漢, 尹永吉, 趙昇東。

決議事項 :

- 3次 會議 以後의 事業進捗事項에 對하여 檢討하고 미해결된 圖書館法 改正問題와 任員選舉制度에 대하여 今年안으로 解決을 보기로 함.

2. 明年度 事業計劃에 대한것은 次期 會議時 論議하기로 함.

第3次 用語分委 會議錄

日 時 : 1969年 11月 27日 後後 3時

場 所 : 圖協 事務局

參 席 : 李正浩, 申鉉柱, 司空哲, 金容伯, 南光祐。

決議事項.

그동안 研究 檢討한 分野(Documentation 擔當 司空哲 委員)를 70年度 1月號 月報에 掲載 發表外로 하고 來年 1月 10일까지 一次分 原稿를 提出토록 함.

事務局日誌

10月 27日	權達天 釜山大學 圖書館長 來局
28日	國會圖書館 訪問(局長, 朴部長)
29日	事務局長 文教部 訪問 中央教育研究所, 延世大學校 圖書館 訪問(朴部長)
	金元基 國防大學院 圖書館長 來局
30日	社團法人體 實態調查 使命(서울市 教育委員會)
31日	KORSTIC 開館式 參席(局長, 朴部長) 第5次 目錄分科委員會 開催
11月 1日	事務局長 韓國雜誌協會 「雜誌의 날」 記念式 및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講習會 終講式에 參席
4日	申東翊 先生 葬禮式에 參席(金部長 於 天安中學校)
5日	李弘植 前會長 回甲宴 參席(局長, 金部長)
6日	“韓國圖書館界의 回顧與展望” 座談會 開催
7日	第6次 常務理事會 開催
8日	弘益大學, 弘益工專 新築校舍 竣工 記念式에 參席(局長, 朴部長)
10日	第11次 選定圖書分科委員會 開催
12日	第2次 分科委員長 會議 開催
15日	文教部 訪問(朴部長)
17日	美大使館 訪問(局長, 朴部長)
19日	第5次 教育·調查分科委員會 開催
21日	第6次 目錄分委 開催

- 22日 韓國圖書館學會 發起人會議 開催
24日 第2次 分類分委 開催

新 入 會 員

〈團體會員〉

原州市立圖書館
서울保健學校 圖書館

〈個人會員〉

任明淳(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구자영(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參考資料〉

- Das Schweizer Buch le Livre Suisse il Libro Svizzero (A. 14, 15, 16, 17, 18. B.4)
-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 18. No. 7.8) Australia Library Association.
- びぶろす(No. 6, 7)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資料案内(No. 13, 14) 韓國外換銀行 圖書室
- L.C.C. Survey(Vol. 3. No.2.) 全南司書會
- 國立國會圖書館報(No.99, 100.)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Colegio de Bibliotecarios Colombianos (Vol.2. No.2; Vol. 3. No.3.; Vol. 4, No.4) Universidad de Antioquia.
- Special Libraries(Vol. 60. No. 7) Special Library Association.
- Encabezamientos de Meteria de la Facultad de Derecho de la Universidad de Antioquia.
- Boletin de Adquisiciones(1968. 6~8, 9~12) uinversidad de Antioquia.
- 圖書館學年報(Vol. 15. No.2) 日本圖書館協會.
- Canadian Library(Vol. 26. No.4)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 Information Bulletin (Vol. 28. No. 32, 33, 36, 37, 38, 39) Library of Congress.
- 도서관(Vol. 24. No. 9) 國立中央圖書館
- ピブリア(No.4, 43) Tenri Central Library.
- 기사색인집(No.5) 韓國外換銀行 圖書室
-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of Western Australia.(1968~1969)

人事消息

- 9月 23日 濟州大學圖書館長 (現) 강 통원
(前) 한 창영
11月 27일 권 현구 (前) 김 해 합정국민학교
(現) 김 해군 교육청

- 마을문고(1969, No. 8, 9, 10) 마을문고본부
- 親和(191號) 日韓親和會
- 圖書館雜誌(Vol.63. No. 11) 日本圖書館協會
- 國立國會圖書館月報(No.98)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立法參考資料(106, 112號)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 조선총독부 월보 및 조선실록목차색인. 國會圖書館
- 신착자료속보(62, 63, 64) 國會圖書館
- 종로도서관(창간호) 서울特別市立鍾路圖書館
- Aspac Quarterly (Vol. No.2) ASPAC
- Unesco Chronicle (1969, No. 9, 10) UNESCO
- TLA Bulletin (Vol. 13. No.3) T.L.A.

配付 依賴 圖書目錄

- 經濟論叢(第28輯) [128部] 中央大學校 圖書館
- 全國經濟學教授 심포지움 [128部] 中央大學校 圖書館
- 녹지 (第3輯) [60部] 中央大學校 圖書館
- 理工學報 [50部] 中央大學校 圖書館
- 外國學術雜誌索引 [57部]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 在日韓國人 [55部] 文化公報部
- 품질관리 (39號) [90部] 標準局
- 한국고대판제사연구 [160部] 明知大學
- 기리기 [300部] 興士團
- 과학수사연구소 년보 [34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공군 [68部] 공군중앙도서관
- 유네스코 뉴스 (10月) [70部]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 Korea Journal (10月) [70部]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 論文集 [320部] 中央大學校 圖書館
- 지방행정 [20部] 大韓地方行政協會
- 品質管理 (40號) [90部] 標準局
- 산업연관분석 [100部] 韓國銀行 調查部
- 통계월보 (4~10月) [1750部] 韓國銀行 調查部
- 산업연관표 [100部] 韓國銀行 調查部
- 연차보고서 (1968년) [100部] 韓國銀行 調查部
- 연차보고서 (英文; 1968년) [150部] 韓國銀行 調查部
- 기업경영분석 (1967) [150部] 韓國銀行 調查部
- Review of Korean Economy (1968) [100部] 韓國銀行 調查部
- Economic Progression Korea [200部] 韓國銀行 調查部
- 재무통계월보 [28部] 韓國銀行 調查部

12月 1日 金錫淳 (前) 建國大學校 圖書館 副館長
(現) 建國大學校 圖書館 館長

12月 1日 洪福一 (前) 空軍中央圖書館 司書將校
(現) 空軍中央圖書館 閱覽課長

뉴 우 스

「舊韓國古文書解題目錄」 整理完了

——本協會書誌事業會에서——

지난年末에發足을 본本協會傘下韓國書誌事業會에서는第1次事業으로推進中에 있던「舊韓國古文書解題目錄」의整理作業을完了하여印刷에回付하였다고 한다.

이作業은우리나라가開花의自覺으로現代文物의潮流가急激히밀려오던때인1871年부터1907년까지의여러가지公文書를調查·整理한것인데外勢의壓力과어자립된情勢속에서의隣邦혹은歐美的여러나라들과의外交關係를樹立하였던우리나라初期의外交文書(553件)와新思潮의물결이밀려옴과더불어열려진各開港場을center으로한諸般問題의研究資料가될監理署關係의公文書(519件)와海關文書(18件)그리고衙門文書(64件)等우리가미처손을내지못했던該部門을研究하는데基本資料가되는史料로서內外學界가커다란关心을갖는作業이었다.따라서이文書는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內의奎章閣에屬해있던것으로서本韓國書誌事業會內의古文獻委員會(委員長韓治勵教授)에의하여이루어진것인에來年1月中旬頃四·六倍版體制의冊으로出刊될豫定이라고한다.

韓國圖書館學創立胎動

1950年代에近代的圖書館學이우리나라에들어온以來10數年の世月를보내는동안미흡하나마圖書館學을韓國의인것으로發展시키려는努力은學界에從事하는圖書館人들만의念願은아니었다.오히려歐美에서導入된圖書館學은우리의社會構造와文化實情또諸般制度,특히教育制度의差異에서오는問題들은實務를擔當하는圖書館人們에게서더많이發見되고그때마다 더욱韓國의인圖書館學과圖書館奉仕가熱望되어온것이라하겠다.더구나우리의것으로定着시키려는努力보다앞서서나날이發展되어가는先進의뒤를따라가야하는奔忙한課題가並存하는것이우리의現實이다.此際에圖書館學의研究를促進하고國內外學界와의紐帶를通하여우리나라圖書館學發展을기하려는韓國圖書館學會의創立이活潑히進行

되고있다.

이學會의推進은그간4個大學圖書館學科의教授들이中心이되어여러차례의準備會議를갖고,全文第6章,第22條로된會則案을마련하였고,創立總會를오는12月27日頃으로豫定하고있다고하는데이學會의創立를위해본협회에서는그간行政分科委員會를여러차례召集하여會則의案을마련하는등산파역을담당하였다.따라서同職者여러분들의積極的인協助와參與를바란다고한다.

◎專門委員會活動

圖書館學教育實態分析報告書近間完了

우리나라의近代的圖書館이導入되어10餘年間자라온오늘,나날이發展되어가는學術文化와科學技術의進步에따라새로히要求되는專門職의教育과養成을위해오늘의教育實態를分析評價反省함으로써보다더바람직한來日의education計劃및改善를위해그간education調查分委가調查研究分析한報告書가近間出刊하게된다.

同報告書는正司書資格證을所持한全國의實務擔當圖書館人과館長 및管理者의位置에있는圖書館人을對象으로標本調查한資料로서分析되는것이라고하는데,이를위해同教育·調查分委에서는지난11月19日會議를갖고오는12月10일까지原稿작成을完了하여最終檢討카로하였다.

圖書館人人名簿作成

우리나라의各級圖書館이날로發展함에따라圖書館人人口도5千3百餘名을혜아리게되어本圖協에서는圖書館人人名簿를作成하여全國의坊坊曲曲에서勤務하는圖書館人의現況및動態把握은물론同僚相互間에親睦을圖謀할수있는資料集(圖書館人人名簿)을發刊키로하여現在人事카아드를蒐集중에있다.따라서이事業을위해그간行政分委에서는여러차례의會議를통해人事카아드의樣式및人名簿發刊에따르는諸問題를討論한바來年1月중에冊字發行을서두르고있는데同職諸賢은協助를하는뜻에서配付된人事카아드를조속히제출하여줄것을바란다고하다.따라서人事카아드는철저히보안조치를할것이라고한다.

KDC 및 KCR修正檢討中

圖書館이學校教育은물론社會教育의心臟으로서 그役割에대한重要性과普及을強調하여圖書館施設이

날로 增加하고 發展되어 次에 따라 圖書館의 運營과 奉仕과 그리고 技術의 改善등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圖書館이 成長하는 組織體임을 證明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學術文化의 發達과 더불어 成長하는 圖書館의 資料整理 組織에 대한 새로운 展開와 改篇은 必然의 作業이라 하겠다. 그간 分類分委와 目錄分委에서는 K DC 및 KCR에 대한 訂正 및 修正의 必要性에 對하여 合議하고 여러 차례 會合을 가지면서 細密한 檢討와 研究를 각委員들이 分擔하여 進行中에 있다.

圖書館用語集도 修正 檢討

한편 用語分委에서도 3次의 會議를 갖고 既報한 바와 같이 (“도협월보” Vol. 10. No. 6 p. 43) 각分科別로 項目을 分擔하여 修正을 檢討 중에 있는데 지난 11月 27日 3次 會議에서는 널리 意見을 參酌하고 諮問에 부치고자 來年 “도협월보” 첫호에 우선 同分委가 십의 採擇한 原稿(Documentation 關係 用語; 司空 哲 委員擔當)를 揭載하여 全會員들의 諮問에 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分類, 目錄 用語分委에서는 會員 諸位의 助言과 積極的인 協助를 바란다고 한다.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長에 金錫淳 先生 就任

本 協會 理事이시며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副館長으로 계시던 金錫淳 先生께서 지난 12月 1日字로 同 圖書館長으로 升進 發令되었다. 이번 金 館長의 就任은 우리 나라의 大學 當局이 圖書館學 教育을 받은 專門 圖書館人을 圖書館長으로 起用한 두번째가 되는 일로서 圖書館人들 뿐만 아니라 大學 社會에 커다란 자극과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大學圖書館이 大學 教育의 心臟으로서 學門研究에 있어 中核이 되는 學術 情報의 提供 奉仕를 통한 大學 教育에 있어 圖書館이 擔當하는 役割이 重大한 것임을 理解하면서도 각 大學이 非專門職인 教授로 館長을 補任함으로써 圖書館 運營에 圓滑을 期하지 못하고 있어 時急히 그 改善이 要請되고 있는 바 今般 建國大學校가 앞장을 서서 이를 斷行함으로써 學術研究를 生命으로 하는 大學의 機能에 革新的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同 大學校의 總長 및 財團理事陣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이 擔當하는 役割에 대한 깊은 理解로서 바람직한 大學教育을 實現하려는 一段으로 取해진 措處로서 圖書館 奉仕를 中核으로 이루어지는 大學教育이 점차 實現되는 事例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申鉉柱 委員 臺灣 訪問

世界基督教家庭生活委員會

極東地域會議 講演次

本 圖協 用語分委 委員이며 韓國監理教神學大學 教授로 在任中인 申鉉柱 先生이 지난 11月 13日부터 22日까지 10餘日間 臺灣을 訪問한 바 있다.

申先生은 11月 16日부터 21日까지 臺灣 West group Hall에서 열린 世界基督教家庭生活委員會 極東地域會議에 特別講師로 招聘되었던 것인데, 同會議에는 韓國을 비롯한 日本, 中國, 香港, 新加坡 等 10餘個國에서 120名餘名이 參席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5名의 代表와 申先生 等이 參席하였다. 그런데 申先生은 “家庭生活과 教育”이란 主題로 講演을 하였는데 이 會議는 4年마다 國家別로 巡回하면서 開催된다고 한다.

David Kaser 氏 來局 美 Cornell大學 圖書館長

美國의 Cornell 大學校 圖書館長 David Kaser 氏가 지난 11월 14일 午後에 本 協會를 訪問한 바 있다.

Kaser 氏는 美國 國際開發處(AID)의 委嘱으로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全般的인 事情을 알아보기 위하여 訪韓하였든 것인데 本 協會를 訪問하여 館界動向 및 여터가지 圖書館 問題에 대해서 歡談을 나누는 중 우리나라 圖書館界가 自身과 信念에 차 있으며 용기와 굳연으로 活氣차게 發展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졌음을 감명깊게 보았다는 意見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Kaser 氏는 1967年 美國 國際開發處(AID)의 委嘱으로 美烏茲 經營研究所가 主管하여 實施한 「韓國圖書開發事業現況調查團」의 一員으로 訪韓한 적도 있는데 今年度에는 “Library Development in Eight Asian Countries”란 著書를 Pittsburgh 大學校 圖書館長인 C. Walter Stone 氏와 Indiana 大學校의 Cecil K. Byrd 氏 등과 같이 出刊한 바 있다.

獎學金 募金現況 (1969, 12. 1現在)

★ 美8軍 圖書館 職員一同	50,000원
★ 韓國圖書館協會 職員一同	20,000원
★ 劉衡勝(前 大田大學 圖書館長)	3,000원
現在 Librar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計	73,000원

編 輯 後 記

「歴史의인 見解」라는 것은 間人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見解이지 결코 全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歷史의인 見解는 「人間」과 「歴史」라는 根本의인 關係에 대하여 생각을 할 必要性을 우리 人間에게 喚示해 준다.”

* * *

밤이 깊으면 멀지 않아 새벽이 온다는 정조다. 60年代의 깊은 밤은 서서히 歷史의 흐름이란 當偽에 실려 70年代란 새벽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잠든 多至의 진 밤을 조용히 지켜 앉아 여러 가지 明暗으로 범벽이 되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깊은 명상에 잠기는 시간도 이제 지나 잔다. 이제 새로 밝는 아침을 맞이 할 설레임과, 未知의 時間에 맞을 대려야 할 課題를 細密히 생각하고 設計해야 할 時間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배울 것과 整理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분주하게 한다.

* * *

돌이켜 보면 60年代란 大地 위에 우리의 곡괭이와 호미와 쟁기로 일구어진 이랑이 얼마나 되었으며, 잘 고 심고 키운 보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새로 밝는 아침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

운 歷史의 意識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記述되는 歷史나, 存在하는 것으로만 歷史를 가져야 할 未來를 경원하고자 한다.

探究의 對象으로서의 歷史, 探究의 對象으로서의 韓國, 變革과 創造의 對象으로서의 現實을 渴求하고 念願하는 送舊迎新的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 * *

1969年을 보내는 送年號를 「特輯」으로 구며 보았다. 금년 일년동안의 各級 圖書館界에 대한 紹介와 近代圖書館學이 導入된 以後 우리 歷史의 全部라고 할 60年代를 回顧하고 70年代를 맞는 對話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回顧와 展望은 發展을 위해서만 必要한 用語임을 믿으면서 말이다.

* * *

研究論文으로서 揭載한 鄭馳謨先生의 글은 Xerox時代에서 Computer時代에 突入하려 하는 우리의 意慾과 指向에 앞서 現實의in 問題點들을 再確認하고 그에 대한 是正과 準備를 促求하는 意味에서 불 떼 좋은 內容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歷代 事務局長으로서는 처음으로 外國을 公式訪問하여, 韓日間에 協助를 위한 問題들이 相互 양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일들이 崔局長의 日本 圖書館界 訪問記로 나오게 되었다.

아울러 이 한 해(年)동안 本誌에 投稿 해 주시고 激勵해 주신 여러분과 愛讀 해 주신 會員諸位에게 编輯者는 이 자리를 빌어 深厚한 感謝를 드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겠다.(遠)

1969年 11月 25日 印刷

1969年 11月 30日 發行 <頒價 80원>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六(國立中央圖書館構內)

<月刊> 도 협 월 보

第10卷 第10號

發行人 姜周鎮
編輯人 崔根滿

電 話 (22) 4864·5613

振 替 서 울 3753

私 書 函 서울國際 2041

印 刷 人 三省印刷株式會社